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물질주의가 쾌락적·효용적 쇼핑가치에 미치는 영향

-서울과 울산의 중·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서 정 희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쇼핑경험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쇼핑가치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용적 차원과 쾌락적 차원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 이 논문은 서울과 울산의 중·고등·대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물질주의가 효용적 쇼핑가치와 쾌락적 쇼핑가치에 미치는 조사함으로써 쇼핑경험의 평가에 관한 이론을 정교화 시키고, 소비자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조사대상은 서울과 울산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820명이다. 조사도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물질주의 및 쇼핑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지이다. 자료는 SPSS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 중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이용하였다.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검증결과에 의하면 효용적 쇼핑가치와 쾌락적 쇼핑가치는 조사지역, 아버지 및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 여부 및 주관적 생활수준 인지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쾌락적 쇼핑가치는 학교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효용적 쇼핑가치는 학교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용적 쇼핑가치와 쾌락적 쇼핑가치 모두 울산의 학생들이 서울의 학생들보다 높았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높았다. 효용적 쇼핑가치는 중학생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비하여 높았다. 효용적 쇼핑가치는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대졸 집단이 가장 낮고, 고졸이하 집단이 가장 낮았고, 대졸집단이 중간이었다. 쾌락적 쇼핑가치는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대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낮았다.

효용적 쇼핑가치와 쾌락적 쇼핑가치는 중간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는 쾌락적 쇼핑가치와는 낮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효용적 쇼핑가치와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중회귀분석 결과, 조사지역과 연령만이 효용적 쇼핑가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조사지역과 물질주의는 쾌락적 쇼핑가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적당한 수준의 효용적 쇼핑가치와 쾌락적 쇼핑가치의 추구는 쇼핑의 만족수준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쾌락적 쇼핑가치를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쇼핑중독증, 강박구매와 같은 비정상적인 소비행동에 빠질 염려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울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나친 물질주의와 쾌락적 쇼핑가치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